

타이틀	10. 이루리, 자리를 안내하다
배 경	J호텔
등장인물	이루리: 20대 여 나주임: 20대 선배 강차장: 30대 기획팀 고객1, 고객2
시놉시스	

이루리가 일하는 호텔에서 대형 의학포럼이 개최된다. 호텔은 가장 사람들의 참여가 많이 예상되는 시간에 직원들 총동원령을 내린다. 루리는 작년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수를 보고 5시 프로그램이 가장 메인이라는 것을 파악한다.

5시가 되어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모이고 루리는 좌석안내를 지시받는다. 좌석표를 받았지만 공간 문제상 현장에서 자리배치에 변동이 생긴 상황. 루리는 전원 문제로 한쪽 라인이 뒤로 빠졌다는 얘기에 원래 좌석안내표에 바뀐 위치를 추측해 수정해 표시한다.

마침내 손님이 좌석표를 가지고 안내를 부탁하고 루리는 자기 예상을 확인해 가며 손님을 한번에 제대로 올바른 자리에 안내하는 데에 성공한다.

그때 강의자 중 한 명이 루리에게 왼손잡이용 가위를 요청하고 급히 사무실로 뛰어간 루리는 여러 개의 가위들 중에서 왼손잡이용 가위를 찾아낸다.

드디어 포럼이 시작하는데 뒤늦게 손님이 도착한다. 손님은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자기 자리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이루리는 좌석표를 보여주며 손님이 찾는 자리로 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대 본

#1 타이틀 : 이루리, 자리를 안내하다.

#2 회의실

호텔 입구에서 상냥하게 인사하고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루리, 잠시 후, 나주임이 <제5회 국제 신재료학 포럼>이라고 쓰인 포럼 계획안의 시간표 부분 출력물을 들고 온다.

나 이루리씨, (프린트물 건네며) 있다가 오후에 여기 많이 바쁠 것 같다고요. 부르면 바로 접객 지원해 달라고 하네요.
루리 네, 알겠습니다. (계획안 열어 본다.)

화면 멈추고 루리 속생각

루리 오후? 가장 바쁠 때라는 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때겠지?

나 언제 지원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면 좋는데 말이에요. 계속 대기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루리 (출력물 살펴보며) 한... 5시쯤일 거 같아요.

나 (깜짝) 정말? 어떻게 알아요?

루리 (보여주며) 여기 프로그램 시간이랑 신청인원이 나와있는데요. 6시에 제일 많아요. 500명이라는데요.

나 (루리가 보여주는 부분 보며 의심스럽게) 그럴까요?

#3 포럼장소 입구

나주임과 이루리가 종종종 서둘러 오면 강차장이 알아보고 급히 다가온다.

강 아, 나주임. 이루리씨랑 고객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곧 많이 몰릴 시간이예요.

나 네.

강차장이 좌석배치도를 파일에서 2장을 꺼내 나눠주는 사이에 시계를 보는 나주임. 시계가 4시 50분을 가리키고 있다.

나 (슬쩍 시계 보라고 툭 치며) 진짜 5시네요. (웃는 이루리)
강 (좌석배치도를 들어 보이며) 고객들은 미리 예약하고 온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좌석을 확인하고 안내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주의사항! 이게 좌석배치도인데 지금 변동이 생겼어요. TV 방송용 장비가 들어가야 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A구역과 E구역 벽 쪽 끝 좌석을 C구역 맨 뒤로 옮겼어요. 즉, C구역 맨 뒤 10열이 A줄이고, 11열이 E줄이 되는 거죠.
나 그럼 해당 자리의 고객들에게는 자리이동을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하나요?
강 아뇨. 그럴 필요 없어요. 예약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자리가 배정된 거지, 고객들이 미리 자리를 지정한 게 아니거든요. 또 궁금한 건?
루리 (조심스레 손 들며) 그럼 A구역 1번 좌석들은 모두 C구역 10열로 안내하는 건가요? E구역 7번이나 8번 좌석은 모두 C구역 11열이고요? 그런데 좌석번호가 똑같은데 자리는 어떻게 안내할까요?
강 열 번호가 좌석번호가 되는 거죠.
루리 아, 네.
강 있다 고객들 몰리면 헛갈릴 수 있으니까 그 좌석표에 표시해 놓으세요.
이루리, 강주임 (동시에 대답) 네!

강차장이 가고 좌석배치도를 수정하는 이루리, 수정이 막 끝났는데 고객이 오기 시작한다. 한 고객이 루리에게 표를 내민다.

루리 어서오십쇼, 고객님.
고객1 안녕하세요. 이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서요...

루리가 표를 보니 [A구역 4열-1] 이라고 써있다.

화면 멈추고 루리 속생각
루리 A구역 4열에 1번 자리다! 그럼 C구역 10열 4번자리인거지!

루리 (환하게 웃으며)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안내하는 이루리
이루리가 포럼장에서 나오자 마다 다른 고객이 잡는다.

고객2 저,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죠?

순간 또 멈추는 화면, 속생각
회의장 도면이 단순화되어 나오며 루리 머리 속에서 동선이 빨간 선으로 뚜뚜뚜뚜 표시가 된다. 입구의 화장실로 가면 동선이 길어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면 짧아지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
루리 가장 가까운 화장실? 중앙통로 화장실은 멀고 뒤편 에스컬레이터 옆이 바르겠다!

이루리가 고객을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정확히 방향을 손으로 지시하며 방향을 알려준다.

루리 직진하시다가 왼편을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보이실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고객2 아, 네! 고마워요! (급히 사라지고)

그렇게 계속 고객을 안내하는 바쁜 이루리 모습 컷컷으로 나오고 잠시 후, 박수 소리와 함께 포럼이 시작하는 소리가 들린다.

안내 테이블 앞에서 살짝 안도하는 이루리와 나주임

#4 사무실 또는 유리창문 앞

커다란 유리 창문 너머에 있는 사무실 또는 유리창문 앞, 강차장의 뒤를 따라 이루리와 나주임이 들어온다.

- 강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자 자리로 복귀하시면 되는데요... 아, 이루리씨 이것 좀 해주세요. (책상 위에 놓은 서류봉투를 건네주는)
- 루리 (봉투 속에서 투명 숫자스티커가 나온다.) 디지털 숫자 같은데요?
- 강 (유리창 가리키며) 우리 사무실 유리창에 안내번호를 크게 붙이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우리 안내번호 알죠?
- 루리 네. 100-6688-529
- 강 (유리창 가리키며) 안쪽에서 숫자스티커를 붙여야 하니까 밖에서 똑바로 보이도록 주의하시고요.
- 나 아! 거꾸로 붙여야 밖에서는 똑바로 보이겠네요. 도와드릴까요?
- 루리 아니에요. 제가 조심해서 해보겠습니다.
- 강 그럼 부탁드립니다.

강차장과 나주임이 나가고 한숨 쉬며 숫자 스티커 보는 이루리

- 루리 (멀찍이서 가우뚱 스티커 보며) 왼쪽부터 시작해야 밖에서는 똑바로 보이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종이에 써 보고 하자.

종이에 왼쪽부터 100-6688-529라고 쓰는 이루리, 그리고 유리창에 숫자 스티커를 붙인다. 잠시 후 밖으로 종종 뛰어 나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하는 이루리, 나주임이 같이 와서 확인한다.

- 나 (읽으며) 100-6688-529, 똑바로 잘했네요~
- 루리 (뿌듯하게 웃으며) 네.
- 나 (다정하게 팔짱 끼며) 오늘 고생 많았어요. 우리 퇴근 준비해요~
- 루리 네.

사이좋게 나가는 이루리와 나주임